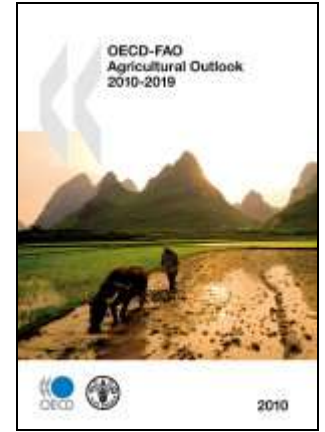


OECD Multilingual Summaries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0

Summary in Korean



OECD-FAO 2010년 농업 전망

국어 개요

전망 개요

농업은 최근 몇 년간, 1930년 이후 가장 심각한 세계 경제 침체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상 최고의 오일 가격, 1차상품 가격 급상승, 식량 안보 불안감 및 이에 따른 교역 제한과 더불어 여러 번의 심각한 충격을 경험하였다. 가장 커다란 영향을 받은 집단은 가난한 사람들, 특히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며, 전세계에서 현재 기아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10억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은, 특히 OECD 지역에서, 경제위기의 상황 동안에 놀랄 만큼 유연하게 강력한 공급으로 높은 가격에 대처하였으며, 비록 손상을 받았지만 수요를 계속 성장시켰다. 2010년에는 시장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어, 생산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근접하였고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정부들은 에너지 가격, 환율 및/또는 주요 국가와 지역의 거시경제적 실적과 같은 핵심 요인에 대한 대규모 충격이 반복될 잠재성이 있으며 이러한 충격의 영향으로 시장이 계속 급변할 있다는 우려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1차상품의 추세를 떠받치는 현재의 거시경제 환경은 2009년 전망보다 긍정적이다. 이러한 환경은 2009년 말 전세계 경제 회복이 시작되고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하고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지 않은 중장기 성장으로 완만하게 전이됨을 반영하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더불어 미약하고 위축된 성장을 특징으로 하는 다수의 OECD 국가들과 강력한 성장과 신속한 경제회복을 특징으로 하여 다른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완만하게 경기회복을 확산시키고 세계 경제 성장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경제규모가 큰 개발도상국들이라는 두 가지의 회복 속도 특성으로 나누어져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했으며, 본 전망이 다루는 기간 동안에 이러한 에너지의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의 추가 상승으로 인하여 구매비용과 생산비용의 상승이 예상되며, 이는 다시 곡물 공급, 가격 및 교역 흐름에 영향을 주고, 바이오연료용 공급원료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

농업의 기반가격 결정이, 특히 에너지 투입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지역에서, 점점 고비용 구조로 되고 있다. 향후 10년간의 전세계 농업 생산물은 이전 10년 동안 보다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상치 못한 충격이 없을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성장은 2010년까지 장기예측필요량의 전세계 식량생산량 70% 증가하게 될 것이다. 1인당 기준에서 볼 때, 저개발 국가들의 생산 증가는 급속한 인구 성장을 대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만큼 낮은 상태이다. 전세계 지역별 성장은 남미와 동유럽 지역에서 크게 높아질 것이며, 낮은 수준이지만 아시아 일부 국가들도 성장을 보일 것이다.

본 전망이 다루고 있는 1차상품의 향후 10년 동안에서, 곡물 평균 명목가격 및 경상가격 모두에서 최저점이었던 2007/08년 이전의 10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계된다 (인플레이션 조정되었음). 평균 밀 가격과 조곡 가격은 1997-2006년 실질가격과 비교하여 거의 15-40% 높아질 것으로 추계되며, 식물성 오일의 실질 가격은 4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된다. 2019년까지의 세계 설탕 가격도 역시 이전 10년 평균 가격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9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9년 말보다는 현저하게 낮을 것으로 보인다.

축산 생산물의 경우, 돈육을 제외한 평균 육류 평균 실질가격은, 일차적으로 공급량 감소, 사료비용 상승 및 수요 증가로 인하여, 향후 10년 동안 1997-2006년 평균가격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돈육 실질가격은 브라질과 중국의 공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곡류에 대비한 육류의 소비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강화되며 우육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금육과 돈육과 등의 저렴한 육류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2010-19년의 유제품 평균 실질 가격은 1997-2006에 대비하여 16-4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와 식물성 오일의 가격 상승이 높아지며, 버터의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연료 시장은 정부 보조와 의무규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원유가격, 정책변경의 영향, 차세대 테크놀로지의 개발 등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요인으로 인해, 이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하다. 바이오연료 의무사용을 준수하기 위한 생산이 계속 확장되는 경우, 공급원료로 사용되는 밀, 조곡, 식물성 오일 및 설탕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이 세계 농업 생산물의 생산, 소비 및 교역의 주요 공급원이 될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물에 대한 수요는 1인당 임금의 증가와 도시화에 의해 촉진되고, OECD 지역의 거의 2배에 이르는 인구증가율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소비가 주식곡류에서 육류와 가공식품으로 완만하게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축산제품과 유제품의 선호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삶이 풍족해지고 중산층이 확장됨에 따라, 이러한 국가들의 식품 소비는 지금 현재의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격과 임금 변화에서 영향을 덜 받게 될 것이다. 즉, 예측 불가능한 충격으로 비롯된 식품가격과 임금의 커다란 변화에 의해서만 식품 소비량이 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추계된 개발도상국 수출입 성장은 실질적으로 모든 1차상품에서 OECD의 성장을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지역의 가공 단백질 식품의 수출만이 2019년까지 비 OECD 지역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도상국의 높은 무역 점유율은 남-북 무역뿐만 아니라 남-남 무역의 확장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은 2019년의 밀 (52%), 조곡 (59%), 돼지고기 (80%), 버터 (80%), 치즈 (63%), 전지분유 (66%), 탈지분유 (74%)의 수출(괄호 안은 점유율)에서 계속 우월한 비중을 유지할 것이다. 반면에 개발도상국들은 2019년에 쌀 (88% 점유), 유지종자 (56%), 단백질 식품 (80%), 식물성 오일 (91%), 설탕 (90%), 우육 (57%), 가금육 (63%)에서 우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1차상품이 2007/08년에 가격 급상승한 다음 떨어진 이후, 식품은 다수의 국가에서 장기간 동안 높은 가격 또는 "경직성" 가격을 유지했다. 특히 OECD 국가에서 2009년의 식품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은 2008년에 비하여 현저하게 하락하였지만, 일부 개발도상국가 및 이머징 마켓 국가에서 식품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직도 현저한 것으로

남아있다.

2006-08년의 가격 급등 이후, 단기적 가격 급변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의 가격 급변 여부와 가격 급변 양태를 본 전망에서 다루기에는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 관련 자료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사실은, 세계 가격이 내수시장으로 전이되는 정도가 국가별로 현저히 다양하며, 이는 세계시장 및 내수시장 통합의 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국제가격의 내수시장으로 전이는 국경정책, 내수가격 지원 및 기반시설의 취약성 여부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전망에서 추계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격은 “정상” 상황이라는 가정에서 나온 결론이다. 기상, 거시경제 요소, 정책 영향, 및 특히 에너지 가격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1차상품의 가격을 예측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다수의 정부는 초단기간의 가격 급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가격 급변은 자국 농업 생존성 (저가) 및 식량 안보 (고가) 모두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불확실성이 높으면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 또는 국제 수준 모두에서 고려해서 선택해야 하는 많은 정책들이 존재한다.

정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농민들 자신이 관리할 수 없는 예측불가능하고 불가피한 리스크에 중점을 두어 농민의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효율적 시장을 마련 (임시방편책인 지원과 도움의 형태를 추구는 융자금 지원책 마련과 같은 정책은 지양해야 함) 등을 통하여 농민들에게 자신들의 사업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적절한 리스크 관리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

식량 비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특히 저임금 식량 수입 국가들이, 국가 또는 지방 수준에서 식량보안의 핵심 1차상품의 비상 비축설비를 갖추는 것은 위기의 시기에 접근할 수 있는 식량을 갖춰 대비책의 자신감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또한 국내 시장의 안정성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위기 비축계획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구와 비축시설 증축 및 모범규범에 대한 지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전체 정부 정책의 틀 속에서 리스크와 자국민의 정책 반응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농업 1차상품에 대한 시장가격지지 정책은 정책적인 선택 중의 하나이지만, 이러한 정책은 다수 국가에서 수십 년 동안 비효율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실질적 사용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가격지지정책은 생산자에게 잘못된 시장 상황인식을 하게 하며, 세계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소비자에게 가격 상승을 전가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역진세로서 작용하게 만든다. 또한 가격지지정책은 대규모 생산자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환경에 잠재적으로 유해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약생산을 장려할 수 있으며, 대다수의 혜택이 고정자산 가치(토지 또는 쿼터)로 환원되어 생산비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지거나, 혜택이 농민 이외로 이전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조치는 왜곡이 덜 되는 대안정책인 대상 농민 수입에 대한 직접지원정책, 생산성향상에 대한 투자 등과 비교 평가되어 수행되어야 한다.

국제 수준에서 살펴보면, 2006-08년 가격 급상승 기간 동안 정부들간의 조율되지 않은 정책 조치들이 시장 급변을 악화시키고 시장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였다. 전세계 공급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을 보다 크게 확보하고 시장 기능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식량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국제 공조가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식량 수입의 불예측성을 낮추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안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상품 교환을 조직하는 것은 유용하며 이는 장기간의 경험으로 증명되었으며, 가격발견 기관과 헤징 기관은 적절히 규제되는 경우 독점행위를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분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다수의 선진국에서 이러한 기관들이 1차상품 마케팅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 자신의 역할을 확장하고 있는 이러한 기관들은 시장을 구조적으로 발전시키고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용한 신호가 되고 있다.

© OECD 2010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불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99 30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